

신반포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명	국어	과목코드	01
	2018학년도 6월 26일 2교시	출제자	이정일, 임동미		
		반 번호:	이름:		

※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맞는 답을 찾아 OMR카드에 작성하세요.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 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나는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 활동반을 접했었는데 그게 바로 도서관이었다. 도서관 담당 선생님은 특별 활동의 첫날, 도서관이 할 일에 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었다.

(나)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 주었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써져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 주었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써져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다) 그 책은 ‘한국 고전 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물 가운데 한 권이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 든 대목은 ‘허생전’이었다.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 내용 역시 익숙했다.

(라)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많은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의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고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

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 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그 책의 내용은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 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이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 펴서 읽었을 뿐인데도.

(마)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 활동 시간은 없어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 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바)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의 일원이 되는 것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 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 준다. 책은 지구 상에서 인간이라는 종(種)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1.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3.0점)

- ① 소재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 ② 자신의 실제 경험을 운문 형식을 빌려 표현한다.
- ③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허구적으로 표현한다.
- ④ 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
- ⑤ 글쓴이가 실제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나타낸다.

2.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책 읽기의 가치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3.0점)

- ① 공부가 재미있고 성적을 올려 준다.
- ② 한층 더 높은 정신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 ③ 사람 사이에서 생긴 고민을 해결해 준다.
- ④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 ⑤ 더 높은 가치와 이상을 추구하는 길을 보여 준다.

☞ 뒷면에 계속

3. 글쓴이가 무협지와 고전 소설을 읽으며 느꼈던 점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3.0점)

- ① 고전 소설과 달리 무협지의 문장은 거부감이 많이 느껴졌다.
- ② 무협지와 달리 고전 소설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 ③ 무협지와 달리 고전 소설의 문장은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으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 ④ 고전 소설과 달리 무협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정신세계가 한층 더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 ⑤ 고전 소설과 달리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의 다음 행동이 궁금했고,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했다.

[4~12]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나)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 들어가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

오래된 한옥 한 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 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솥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발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릿수건이 축
축했다.

— 저어, 방을 한 칸 얻었으면 하네요.

일주일에 두어 번 와 있을 곳이 필요해서요.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 글씨, 아그들도 다 서울로 나가불고

우리는 별채서 지낸게로 안채가 비기는 해라우.

그라제마는 우리 집안의 내력이 깃든 데라서

멤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

세놓으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부는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늘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세 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걸.

4. 시를 외재적 관점으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3.0점)

- ① 시인의 삶을 조사한다.
- ② 시인의 창작 의도를 알아본다.
- ③ 시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본다.
- ④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깨달음을 살펴본다.
- ⑤ 시가 창작될 당시의 현실 상황을 살펴본다.

5.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3.5점)

- ①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고즈넉한 마을에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 ③ 화자는 손님을 맞은 후에 느낀 벅찬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 ④ 의성어를 통해 풍요로운 삶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색채 대비를 통해 현실과 이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다.

6. (가)의 ㉠~㉦이 지닌 상징적 의미로 알맞은 것은?(3.5점)

- ① ㉠ : 고통스럽고 암울한 현실
- ② ㉡ : 과거 평화롭던 삶
- ③ ㉢ : 화자의 소망을 방해하는 장애물
- ④ ㉣ : 죽음, 소멸의 이미지
- ⑤ ㉤ : 암울한 상황을 극복한 희망의 세계

7. (가)의 사회·문화·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주제로 알맞은 것은?(3.0점)

- ① 조국 광복에 대한 염원
- ② 남과 북의 평화로운 화합
- ③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 ④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의지
- ⑤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거부

☞ 다음 장에 계속

8. <보기>의 시에서 (가)의 ‘손님’과 상징적 의미가 같은 시어를 고르면?(3.5점)

————— < 보기 > —————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① 들 ② 봄 ③ 햇살
④ 논길 ⑤ 꿈속

9. ㉠에 드러난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을 두 개 고르면?(3.5점)

- ①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진달래꽃> 김소월
②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간 창 틈으로 고요한 빗소리 /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 아주 먼 옛날 - <엄마 걱정> 기형도
③ 풀이 눕는다 /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 풀은 높고 / 드디어 울었다. - <풀> 김수영
④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열차가 들을 달린다. - <추일서정> 김광균
⑤ 우리가 눈발이라면 / 허공에서 쭈뼛쭈뼛 훑날리는 /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 <우리가 눈발이라면> 안도현

10. (나)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3.5점)

- ① 지민 : 이웃 간에 정이 사라진 세태를 잘 표현했어.
② 태형 : 도시에 비해 농촌은 가족 간에 정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③ 남준 : 요즘 전통 가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④ 정국 : 도시에 인구가 넘쳐 귀농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
⑤ 윤기 :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고 농촌에는 노인 인구가 많아져 농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11. (나)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3.5점)

- ① 벚꽃 지는 걸 보니 / 푸른 솔이 좋아 / 푸른 솔 좋아 하다 보니 / 벚꽃마저 좋아. - <새봄> 김지하

- ② 즐거운 날 밤에는 / 한 개도 없더니 / 한 개도 없더니 / 마음 슬픈 밤에는 / 하늘 가득 / 별이다. - <별> 공재동
③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 별들이 많이 났다. /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 물바가지에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 <어떤 마을> 도중환
④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 꽃이 되었다. - <꽃> 김춘수
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1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개 고르면?(3.5점)

- ① 강원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드러냈다.
② 시가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아늑한 분위기이다.
③ 화자와 주인집 아주머니의 대화를 인용하여 현장감을 드러냈다.
④ 화자가 느낀 감동을 ‘정갈한 마루’, ‘저녁 햇살’의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⑤ 화자는 주인집 아주머니의 마음에 감동하여 지실 마을에 작은 방을 얻어 살게 되었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3.0점)

- < 보기 > —————
- ㉠ 동훈이가 닦았다.
㉡ 영민이가 닦는다.
㉢ 내가 닦겠다.

- ① ㉠~㉣은 과거 또는 현재 시제의 문장이다.
② ㉠에서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은 ‘닦’이다.
③ ㉡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다른 시점임을 나타낸다.
④ ㉠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사건이 뒤에 나타난다.
⑤ ㉢에서 시간 표현을 나타내는 부분을 ‘-ㄴ 것’으로 바꾸어도 시제는 변하지 않는다.

14. 시간 표현이 알맞은 것은?(3.0점)

- ① 나는 지난주에 아빠와 영화를 보다.
② 어제 이 빵을 먹을 사람이 누구니?
③ 내가 어제 모두 꺼리는 일을 하겠다.
④ 나는 어렸을 적 책을 꾸준히 읽었다.
⑤ 앞으로 바빠지겠지만 대학교에 가서도 모임을 계속 꾸려 나갔다.

☞ 뒷면에 계속

15. 각 문장에 나타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3.5점)

- ① 저기 신후가 선생님을 모시고 온다. -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선생님 어서 오세요. -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사람을 높이고 있다.
- ③ 아버지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④ 정말 선생님께서 오시네. - 높임을 나타내는 접미사, 조사,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⑤ 저는 어제 큰아버지 댁에 다녀왔어요. - 대명사와 특수한 어휘, 어미, 접사, 선어말어미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 떼거리의 ㉠피란민(避亂民)들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되 뚝하니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똥똥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나) 아버지한테서 마침내 피란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으로 허리를 잘리고 난 그 이튿날이었다. 아직은 제법 멀찌막이서 노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투 다가와 있었으므로 우리 마을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략) 간단한 옷 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피란길을 떠났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란인지라 누나와 나는 소풍이라도 떠나는 즐거운 기분이었다.

(다)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어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얼굴에 고개를 끄덕였다. “엇저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중략)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이려다가 ㉥뒤란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아침상 버열써다 치웠다. 따른 집에나 가 봐라.” 어머니는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라)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피란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구 소릴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내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날 죽일라구 그랬거든.”

(마) 우는 명선이를 아버지는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기 시작했다. “말은 안 했어도 너를 친자식 ㉨진배없이 생각해 왔다. 너 같은 어린것이 그런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덜 좋은 법이다. 이 아저씨가 잘 말아 줬다가 후에 크면 줄 테니까 일단 숨겼는지 바른대로 대거라.” 아무리 달래고 타일러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마침내 화를 버럭 내면서 명선이의 몸뚱이를 뒤지려 했다.

(바) 그때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굉장한 폭음이 귀뺨을 갈기는 기세로 갑자기 울렸다. 푸른 하늘 바탕을 질러 하얗게 ㉩호주기 편대가 떠나고 있었다. 비행기의 폭음에 가려 나는 철근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을 거의 듣지 못하였다. 다른 것은 도무지 무서워할 줄 모르면서도 유독 비행기만은 병적으로 겁을 내는 서울 아이한테 얼핏 생각이 미쳐, 눈길을 하늘에서 허리가 동강이 난 다리로 끌어내렸을 때, 내가 본 것은 강심을 겨냥하고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가는 한 송이 쥐바라송이였다.

1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3.5점)

- ① 사투리를 사용하여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재-과거-현재의 역순환적 구조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 ③ 명선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비행기 폭음 때문이다.
- ④ 어린 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어른들의 이기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⑤ 제목 ‘기억 속의 들꽃’은 다리 위에 핀 쥐바라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들꽃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다음 장에 계속

17. 이 글에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단어로 알맞지 않은 것은?(3.0점)

- ① ㉠ : 피란민
- ② ㉡ : 만경강 다리
- ③ ㉢ : 폭격
- ④ ㉣ : 공습
- ⑤ ㉤ : 호주기 편대

18. <보기>의 기준에 따라 이 소설의 인물을 나눈 것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세요?(3.5점)

— < 보기 > —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인물은 성격의 변화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평면적 인물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이고, 입체적 인물은 작품 속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이다. 한편 인물의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전형적 인물은 사회의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특성을 드러내는 인물이고, 개성적 인물은 그 인물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다.

- ① 숙부 : 처음부터 자신의 소신이 뚜렷한 입체적 인물이다.
- ② 명선 : 처음에는 얌전했으나 점점 개구쟁이로 변하는 입체적 인물이다.
- ③ 아버지 : 명선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아 입체적 인물이다.
- ④ 나 : 작품에서 성격에 변화가 없고 겉이 많으며 소극적인 평면적 인물에 속한다.
- ⑤ 어머니 : 전쟁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19. ㉠~㉥ 단어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3.5점)

- ① ㉠ 되뜯하니 : 조금 높이가 있는 것이 움작이다가 딱 뗀다.
- ② ㉡ 바투 : 손을 뻗어
- ③ ㉢ 뒤란 : 집 뒤 화장실
- ④ ㉣ 숙부 : 큰아버지
- ⑤ ㉤ 진배없이 : 그보다 못하거나 다름 것 없이

20. 이 글에서 <보기>의 배경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3.5점)

— < 보기 > —

폭격으로 망가진 그대로 기나긴 만경강 다리는 방치되어 있었다. 난간이 떨어져 달아나고, 바닥에 커다란 구멍들이 뽕뽕 뚫린 채 찢뜨물보다도 흐린 싹누런 물결이 일렁이는 강심(江心) 쪽을 향해 곧장 뻗어 나가다 갑자기 앙상한 철근을 엮가락 모양으로 어지럽게 늘어뜨리면서 다리는 끊겨져 있었다.

- ①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②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③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다음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긴장감을 부여한다.
- ⑤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한다.

21. 높임 표현이 알맞게 사용된 것은?(3.0점)

- ① 아버지, 나랑 농구해요.
- ② 철수야, 선생님이 너 오시래.
- ③ 은호야, 할머니 밥 먹으라고 해라.
- ④ 과일을 큰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 ⑤ 내일 할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렴.

22.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동작을 시키는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3.5점)

- ①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 ② 먼 산이 가깝게 보인다.
- ③ 코끼리가 개미에게 물렸다.
- ④ 키가 작은 동생이 언니에게 업혔다.
- ⑤ 많은 사람에게 불리는 노래를 부르자.

23. 사동 표현이 알맞게 사용된 문장은?(3.5점)

- ① 내가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 줄게.
- ② 감독이 코치로 하여금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 ③ 우리는 일을 마무리할 시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 ④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가 직접 교육시켜 드립니다.
- ⑤ 그들은 우리들과 협상할 때 항상 자기들의 입장만 관철시키려 하였다.

24. 주어가 어떤 대상에 의해 행동을 당하는 문장은?(3.5점)

- ①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 ② 영희가 미희에게 책을 읽힌다.
- ③ 따뜻한 난롯불이 열음을 녹인다.
- ④ 재운이가 줄을 반듯하게 잘 맞췄다.
- ⑤ 영희가 철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

25. 피동 표현이 알맞게 사용된 문장은?(3.5점)

- ① 수학 문제가 잘 풀려지지 않는다.
- ② 이것은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 ③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모기가 들어왔네.
- ④ 철수는 이 동네에서 꼬마 대장이라고 불린다.
- ⑤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물건이 보이지 않았다.

☞ 뒷면에 계속

26. 다음 <보기>의 ㉠~㉣의 부정 표현 중 알맞은 것은?(3.0점)

— < 보기 > —

오늘 오후에 승윤이와 야구 경기를 보러 갔다. 며칠 전만 해도 표를 ㉠안 구했는데 다행히 승윤이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표를 사 놓으셔서 경기를 볼 수 있었다.

비록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지 ㉡않아서 실망스러웠지만, 모처럼 목청껏 소리를 질렀더니 시험 때문에 우울했던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책꽂이에 감춰 두었던 내 성적표를 보신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머리는 나쁘지 않는데 공부를 열심히 ㉣못 해서 성적이 ㉤오르지 못한다고 하신다. 하지만 나는 공부보다 야구가 더 좋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십 년 후에 야구 경기장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심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알맞게 묶인 것을 두 개 고르면?(3.5점)

- ① 사동 표현 - 주어가 원하지 않은 일이나 행위를 당한다는 심리를 반영함.
- ② 사동 표현 -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의도를 반영함.
- ③ 사동 표현 - 스스로 하는 행위보다 시키는 행위를 강하게 드러내려는 심리를 반영함.
- ④ 피동 표현 - 자신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반영함.
- ⑤ 피동 표현 -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남(상황 의존성)을 나타내기도 함.

28. 사동, 피동 표현이 쓰인 문장이 바르게 묶인 것은?(3.5점)

- ① 엄마가 웃는다. - 사동
- ② 엄마가 아기를 자게 한다. - 피동
- ③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혔다. - 피동
- ④ 민수가 고무줄을 끊었다. - 사동
- ⑤ 내가 일등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 피동

29. 다음 <보기>의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개 고르면?(3.5점)

— < 보기 > —

저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 ① 긍정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주위의 환경 때문에 잘 수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 ③ 주어의 의지에 의해서 잠을 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④ 주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잠을 자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⑤ ‘말다’를 사용해서 이 문장을 고쳐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30.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5점)

— < 보기 > —

앵커: 국제 유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최 기자: 네. 어제 국제 유가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로써 가파른 오름세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데다 ㉠투기 세력이 유가를 올리고 있어 당분간 이런 ㉡오름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① ㉠은 피동 표현, ㉡은 사동 표현이다.
- ② ㉠은 주체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 않고, 불분명한 주체를 감출 수 있다.
- ③ ㉠은 ‘유가’가 강조되고, 주동표현으로 고치면 ‘투기세력’이 강조된다.
- ④ ㉡을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오름세를 유지하게 할 것으로 봅니다.’로 고쳐야 한다.
- ⑤ ㉠을 주동 표현으로 바꾸면 ‘투기 세력이 유가를 오르게 시키고 있어’로 고쳐야 한다.

-----<끝>-----

※ 선택형 30문항입니다. OMR카드 마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기말고사 지필평가(점수) (문항 당 배점 : 각 문항에 표기)	합 계 (점수)
선택형(30문항)	
100	100

문 항	배점	정답
1	3	5
2	3	1,3
3	3	2,3
4	3	3
5	3.5	1
6	3.5	2
7	3	1
8	3.5	2
9	3.5	3,4
10	3.5	5
11	3.5	3
12	3.5	1,5
13	3	5
14	3	4
15	3.5	4
16	3.5	4
17	3	2
18	3.5	4,5
19	3.5	5
20	3.5	2
21	3	4
22	3.5	1
23	3.5	2
24	3.5	1
25	3.5	4
26	3	3
27	3.5	3,5
28	3.5	5
29	3.5	2,4
30	3.5	2